

18.08.20(월)~18.08.24(금)

1. 전주 주가 추이

단위: pt, 원, 십억원, 배, %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293	1,378,801	1.0	9.2	11.2	2.1	0.6	-7.0	-6.5	-7.1	-564	512	-69	1,464	7,735
KOSDAQ	798	153,465	2.5	18.5	13.8	3.4	4.8	-8.6	-8.8	-0.0	125	81	-34	415	2,317
보험	17,263	19,028	0.6	8.5	7.2	-1.0	-3.8	-7.7	-20.5	-18.3	-47	13	-15	17	96
증권	1,789	17,895	0.8	8.5	9.4	3.6	-0.3	-17.8	-18.1	-9.9	27	-3	5	16	94
삼성생명	91,500	18,300	0.6	8.0	7.1	0.7	-7.2	-15.7	-28.5	-26.5	-22	12	-15	5	16
한화생명	4,805	4,173	0.4	6.8	5.8	-1.4	-5.4	-17.9	-29.2	-30.5	-3	-4	-1	1	5
ING생명	35,850	2,940	0.8	8.4	9.5	-4.4	-12.1	-12.0	-33.6	-32.9	-3	3	-0	0	4
동양생명	6,540	1,055	0.4	10.1	4.3	-5.4	-12.2	-11.9	-13.8	-13.9	-2	0	-1	0	0
삼성화재	270,000	12,791	1.1	12.1	8.7	-0.7	-0.7	4.0	-7.8	1.1	-8	5	2	2	19
DB손해보험	66,100	4,680	0.9	6.8	13.0	-3.1	4.1	10.2	-6.1	-7.2	-5	4	1	3	22
현대해상	37,650	3,366	0.8	6.2	14.2	-2.1	4.0	5.8	-10.7	-19.9	-1	0	1	2	21
메리츠화재	18,550	2,109	1.2	7.8	14.9	-0.5	0.0	-8.6	-21.9	-21.1	3	-5	4	2	3
한화손해보험	6,710	783	0.5	5.3	11.2	-1.3	1.4	-4.6	-21.1	-17.6	-0	-0	0	0	1
삼성증권	31,900	2,849	0.6	7.7	8.1	1.8	-1.4	-14.5	-21.7	-12.8	-3	3	-1	2	12
미래에셋대우	7,980	5,253	0.7	8.9	7.9	2.8	-0.7	-17.8	-16.5	-13.2	-2	6	2	6	35
NH투자증권	12,750	3,588	0.8	9.1	8.5	5.8	-2.3	-23.0	-13.3	-8.3	18	-9	6	4	19
한국금융지주	68,200	3,801	0.9	6.7	14.3	4.4	-1.2	-27.5	-16.6	-1.2	22	-22	1	1	9
키움증권	89,900	1,987	1.1	7.5	16.6	6.4	-2.5	-27.5	-14.8	2.6	11	-7	-2	1	6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p>보험업종 약세 시험: 전주 보험업종 약세를 시험하였음. 미중 무역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한국 증시는 반등하며 그간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을 보여주었음. 이에 따라 기존 방어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소재/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로의 선회가 나타났기 때문에 판단됨. 따라서 그간 상대적으로 강세를 시험하였던 보험업종이 약세를 시험하였다고 판단됨</p> <p>▶ 현대해상 신종 공모본 금리는 밴드 하단 하회: 전주 금요일 현대해상은 신종자본증권 공모본 1,600억원의 발행금리를 확정하였음. 사모로는 4.9%의 조달비용이 발생하였지만 공모 수요 예 측시 많은 참여 물량으로 인하여 공모본은 밴드 하단 4.5%를 하회한 4.34%로 조달금리가 확정되었음.</p> <p>▶ 삼성화재의 장기보험 보험료 인하: 실손보험을 제외한 장기보험의 경우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시 보험료 조정 방법이 조정되었음. 기존에는 3~5년 정기적으로 요율을 조정 하였지만 2015년 이후에는 보험사 자율에 의해 요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조정시에는 모든 담보를 조정해야함. 즉 질병/상해 등 손해율이 높은 담보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려면 사망 과 같이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를 인하해야 하는 담보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는 것임. 삼성화재는 이번 조정을 통해 생존담보의 보험료는 인상되고 사망담보의 보험료는 인하되는 효과가 반영 되었음. 일률적인 보험료 인하가 아니라는 점과 향후 동사의 담보 비중 변화에 따라 수익 영향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p>
----	--

증권	<p>증권업종 강세 시험: 전주 증권업종은 강세를 시험하였음.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은 한국증시의 하방 경직성이 일부 확인되었고 기관들의 수급 측면의 조정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임. 또한 고용 쇼크로 인하여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증권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p> <p>▶ 여야 인터넷은행 특례법 합의 불발: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인터넷신문은행 특례법 심사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여야는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 다음주 중 논의 재개 특히 규제완화 대상(민주당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특례법 적용 제외, 자한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도 특례법 적용 대상에 포함, 금융위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인 기업 중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특례법 적용으로 중재)에 대한 이견이 가장 큰 것으로 보도되었음</p>
----	--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MoM	Quarterly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누계		3Q17	4Q17	1Q18	2Q18	3Q18 누계	QoQ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8.5	-6.1	12.4	14.3	15.0	12.4	9.0	8.6	-3.7	8.2	11.8	13.8	13.9	8.8	-36.8
KOSPI	5.1	-5.0	6.9	7.8	9.1	7.5	5.5	5.2	-5.9	5.2	6.0	7.0	8.1	5.4	-34.1
KOSDAQ	3.4	-7.7	5.5	6.5	5.9	4.9	3.4	3.4	-0.0	3.0	5.8	6.8	5.8	3.4	-40.6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11.1	12.9	11.3	12.2	12.5	11.8	10.8	11.1	2.6	8.3	9.8	11.3	11.8	11.1	-5.7
KOSPI	5.7	27.2	5.4	6.0	6.2	6.0	5.5	5.7	2.5	4.0	4.5	5.4	6.0	5.7	-4.9
KOSDAQ	5.4	1.1	5.9	6.2	6.3	5.8	5.3	5.4	2.7	4.3	5.4	5.9	5.8	5.4	-6.5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75	-7.3	1.89	1.85	1.85	1.85	1.83	1.75	-7.8	1.53	1.85	1.89	1.85	1.75	-9.9
3년	1.96	-15.8	2.22	2.22	2.20	2.12	2.13	1.96	-16.8	1.89	2.13	2.22	2.12	1.96	-16.5
5년	2.17	-16.3	2.43	2.49	2.48	2.35	2.36	2.17	-19.0	2.08	2.35	2.43	2.35	2.17	-17.9
10년	2.38	-11.5	2.62	2.72	2.70	2.56	2.57	2.38	-19.3	2.37	2.47	2.62	2.56	2.38	-17.8
약정 MS	%	17년대비, %p						%	%p					%	%p
삼성증권	6.0	0.0	6.2	6.4	6.1	6.0	6.1	6.0	-0.1	6.2	6.0	6.2	6.2	6.0	-0.1
미래에셋대우	12.0	-0.6	13.1	13.2	12.8	12.3	12.4	12.2	-0.1	12.7	13.2	13.3	12.8	12.3	-0.5
NH투자증권	7.4	1.4	6.3	6.4	6.4	6.4	6.5	6.9	0.3	5.7	6.4	6.3	6.4	6.7	0.3
한국금융지주	5.4	-0.4	5.5	5.5	5.2	5.1	5.3	5.4	0.1	6.1	5.8	5.7	5.3	5.4	0.1
키움증권	17.6	1.1	17.1	18.5	18.2	17.9	16.9	17.5	0.6	15.3	17.4	17.5	18.2	17.1	-1.1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 보험업종은 시장대비 약세를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부진한 국내 경기를 감안할 때 31일 금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금리 측면에서의 부담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KOSPI 및 KOSDAQ의 변동성 축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축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 전주말 기준으로 10년물 금리는 2.38%로 연초대비 11.5bp 하락한 상황임 다만 지난주 크게 우려하였던 태풍은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사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7월 폭염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높았다는 점 때문에 태풍의 영향이 크게 발생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임. 7~8월에는 영업일수가 많이 표현적 손해율이 높아보일 수 있지만 9월에는 영업일수가 적어 3분기 기준의 손해를 부담은 9월에 크게 완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현대해상의 신종자본증권의 공모에 많은 자금이 몰려 금리가 밴드 하단 4.5% 이하에서 결정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해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높아진 금리 부담으로 보완자본 조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지만 국내에서 5,000억원을 소화하였고 공모에서의 자금 유입을 감안할 때 조달 환경이 당초 우려보다는 양호하다고 판단됨
----	--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업종은 전주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생각함. 거래대금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 축소에 따라 반등에 성공하였기 때문임.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반등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지금의 가격대에서 크게 하락할 Risk는 완화되었다고 판단됨 금주에도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 뉴스가 반영되며 북한의 비핵화 기대감이 지연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으며 이달 말 중국A주가 MSCI EM 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한국 비중이 14.1%에서 14.0%로 0.061% 낮아질 예정임. 마지막으로 28일에는 페터 프라드 ECB 집행위원회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연말 채권매입 프로그램 중단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즉 금주에도 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다만 전주에 확인된 하방경직성을 바탕으로 한국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에 대한 점진적 투자를 권유함
----	--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8월 30일	EU	소비자물가지수	2.1%	2.1%
8월 31일	한국	금통위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 증권사, 대출금리 깎아주기 경쟁 불붙었다…1% 대까지 선보여 (아시아투데이) 비대면 채널 후발주자 공격 마케팅, 1%대 신용대출 이자율까지 제공</p> <p>▶ 교보생명 IPO, NH투자증권 등 주관사 6곳 선정 (브릿지경제) 숫리스트 선정, 국내 증권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외국계는 씨티, CS,JP모건임</p> <p>▶ "공격투자로 대형 IB 도약"…5대 증권사, 5500억 썼다 (매일경제) 미래에셋대우, 중국판 우버등 PEF 포함 2831억 쏟아부어, NH證 778억·KB證 728억順</p> <p>▶ 태종 '술릭' 수도권 지나 동해로 빠져나갈 듯…오후부터 비 그쳐 (매일경제) 내륙 상륙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으나 큰 피해 없이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p> <p>▶ 이번엔 실손보험(?)…1000만 가입 실손보험 갱신 폭탄 어쩌나 (이데일리) 2008~2009년 가입자(3년/5년 갱신)의 보험료 인상이 하반기에 진행, 실손보험료 기준으로 5년 갱신은 2~3배, 3년 갱신은 평균 85% 인상, 감독당국의 견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근거는 2008년 이전에 판매한 계약들은 이미 인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임. 필자의 실손보험료는 2016년에 갱신되었는데 2배로 인상되었음 ^^;;</p> <p>▶ 한국·NH증권, 발행어음 '시너지' 본격화 (더벨) 발행어음을 무기로 잇따라 대규모 딜의 주관사로 선정. 딜 중개 뿐 아니라 직접 투자까지 가능해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필요로하는 기업 입장에서선 최적의 IB 파트너로 선정됨</p> <p>▶ 금감원 "보험사 요양병원 암보험금 부지급 국민검사 기각" (조선비즈) 금융감독원이 21일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국민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심의위원회에서 기각</p> <p>▶ 보장성보험 사업비 축소 초읽기…보험사 울상 (비즈니스위치) '신계약비 축소방안'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 금융위 "해약환급금 늘리고 보험료 인하 기대"</p> <p>▶ 靑 기준금리 발언에 시장지표금리 10개월 만에 최저…'연내동결론'도 술술(서울경제) 靑 "美 금리인상 여파있을 것…韓 맞는 금리정책 써야", 국고채 3년물 금리,1.919%...지난해 10월 이후 최저</p> <p>▶ 삼성화재, 암보험 등 보험료 최대 7% 가량 낮춘다 (뉴스핌) 전일 삼성화재의 암보험 등 보험료 최대 7% 인하 뉴스에 대한 생각: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위험요율 조정 기간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만 위험요율 조정을 모든 담보에 대해 한번(손해율이 높은 담보만 진행해서는 안됨)에 진행하여야 함으로 결정되었음. 삼성화재가 위험요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결과 사망담보 등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질병담보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예정임. 담보의 믹스에 따라 상품별 보험료 인하 폭은 다른 상황이며 언론에 보도된 7%는 암보험(특정 상품) 관련 최대 인하 폭임. 2위권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던 삼성화재가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됨</p> <p>▶ 내년부터 변액보험 수익률 급락시 문자알림 (아시아경제) 금감원, 매달 문자메시지로 변액보험 계약 정보 제공 추진…펀드 수익률 정보도 더 정확하게</p>
----	---

7. Global Peers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293		1.0	9.2	11.2	3.1	2.1	0.6	-7.0	-6.5	-7.1
	보험	17,263		0.6	8.5	7.2	0.7	-1.0	-3.8	-7.7	-20.5	-18.3
	삼성생명	91,500	16.4	0.6	8.0	7.1	0.7	0.7	-7.2	-15.7	-28.5	-26.5
	한화생명	4,805	3.7	0.4	6.8	5.8	0.4	-1.4	-5.4	-17.9	-29.2	-30.5
	ING생명	35,850	2.6	0.8	8.4	9.5	1.1	-4.4	-12.1	-12.0	-33.6	-32.9
	동양생명	6,540	0.9	0.4	10.1	4.3	0.3	-5.4	-12.2	-11.9	-13.8	-13.9
	삼성화재	270,000	11.5	1.1	12.1	8.7	1.3	-0.7	-0.7	4.0	-7.8	1.1
	DB손해보험	66,100	4.2	0.9	6.8	13.0	1.2	-3.1	4.1	10.2	-6.1	-7.2
	현대해상	37,650	3.0	0.8	6.2	14.2	1.2	-2.1	4.0	5.8	-10.7	-19.9
	메리츠화재	18,550	1.9	1.2	7.8	14.9	1.4	-0.5	0.0	-8.6	-21.9	-21.1
	한화손해보험	6,710	0.7	0.5	5.3	11.2	0.9	-1.3	1.4	-4.6	-21.1	-17.6
	증권	1,789		0.8	8.5	9.4	1.0	3.6	-0.3	-17.8	-18.1	-9.9
	삼성증권	31,900	2.6	0.6	7.7	8.1	0.9	1.8	-1.4	-14.5	-21.7	-12.8
	미래에셋대우	7,980	4.7	0.7	8.9	7.9	0.7	2.8	-0.7	-17.8	-16.5	-13.2
	NH투자증권	12,750	3.2	0.8	9.1	8.5	0.9	5.8	-2.3	-23.0	-13.3	-8.3
	한국금융지주	68,200	3.4	0.9	6.7	14.3	1.1	4.4	-1.2	-27.5	-16.6	-1.2
	키움증권	89,900	1.8	1.1	7.5	16.6	2.3	6.4	-2.5	-27.5	-14.8	2.6
일본	Nikkei225	22,602		1.7	16.0	10.5	2.0	1.5	-0.5	0.7	0.9	-0.7
	보험	1,031		0.8	10.5	7.0	0.9	0.7	-1.4	-1.4	2.5	-2.7
	Dai-ichi Life Holdings	4,407	28.1	2.5	51.4	4.7	2.6	2.7	-6.3	18.8	13.7	50.1
	Japan Post Insurance	2,422	13.1	0.7	15.9	4.6	0.1	2.1	1.0	-3.0	-10.5	-8.6
	Tokio Marine Holdings	5,318	35.8	1.0	14.6	7.3	1.1	-1.0	0.1	0.0	7.6	3.4
	증권	384		0.8	9.4	8.2	0.6	1.5	-2.1	-8.3	-13.7	-11.6
	Nomura Holdings	508	16.6	0.6	7.0	9.0	0.6	0.2	-9.2	-13.5	-23.8	-23.7
	Daiwa Securities	663	10.1	0.8	10.2	8.6	0.6	1.4	0.0	2.1	-9.5	-6.2
	SBI Holdings	2,877	5.8	1.4	12.5	11.9	1.2	3.2	-3.2	-6.4	18.1	22.1
	Hang Seng	27,672		1.2	11.3	12.9	1.1	1.7	-3.9	-9.5	-11.5	-7.5
중국/홍콩	상해A주 지수	2,858		1.3	10.9	12.2	1.2	2.3	-5.0	-13.1	-17.1	-17.5
	보험	144		1.3	11.3	11.5	1.8	3.5	-1.8	-9.4	-21.1	-19.9
	China Life	18	86.5	1.3	11.0	12.1	1.4	-0.2	-8.2	-16.4	-22.7	-25.1
	Ping An Insurance	74	169.4	2.1	11.7	19.6	1.5	7.4	-0.3	-4.8	-14.9	-9.0
	AIA	66	101.8	2.2	18.3	12.9	2.5	0.4	-3.1	-6.2	4.7	-0.8
	증권	88		1.0	14.4	7.7	59.1	2.9	-5.0	-22.3	-28.7	-30.2
	CITIC Securities	14	27.2	0.9	11.9	8.2	2.0	0.7	-10.1	-27.4	-24.4	-12.3
	Haitong Securities	7	13.4	0.6	8.0	7.4	1.7	1.4	-10.7	-28.4	-38.2	-37.3
	Huatai Securities	12	17.6	0.8	9.9	8.4	2.0	4.9	-2.4	-21.1	-25.9	-22.2
	S&P500	2,875		3.3	17.8	18.3	3.6	0.9	2.0	5.6	4.8	7.5
미국	보험	388		1.4	12.0	11.1		0.2	0.1	0.6	-2.8	-3.4
	AIG	53	47.4	0.7	11.9	6.5	0.8	1.4	-1.7	0.0	-9.7	-10.5
	Metlife	46	46.2	1.0	8.9	11.5	0.7	1.0	2.7	-2.6	-2.4	-8.2
	Prudential Financial	99	41.1	0.9	8.1	12.0	0.6	-0.3	0.4	-1.5	-10.5	-14.3
	증권	201		2.1	14.6	13.2	1.3	0.3	-2.4	-4.4	-6.8	-1.1
	JP Morgan	115	385.4	1.6	12.5	13.4	1.3	-0.1	-0.1	3.6	-3.4	7.2
	Goldman Sachs	235	92.2	1.2	9.5	12.8	1.0	0.7	-0.8	0.0	-13.3	-7.7
	Charles Schwab	51	68.3	3.6	20.7	18.8	1.3	-0.7	-4.0	-11.8	-5.9	-1.6
	MSCI Europe	129		1.8	14.5	10.5	1.0	0.6	-2.2	-2.0	0.2	-1.7
	보험	74		1.1	10.6	12.8	1.0	0.4	-0.7	-4.0	-5.8	-3.6
유럽	Allianz	186	92.7	1.2	10.6	11.7	0.9	0.7	0.4	-1.1	-3.5	-3.1
	AXA	22	61.3	0.7	8.7	8.9	3.8	1.1	3.4	-3.1	-15.2	-12.0
	Prudential plc	1,735	57.8	2.5	11.5	23.0	0.5	0.9	-2.0	-8.2	-5.7	-8.9
	Munich Re	185	32.2	1.0	10.8	9.0	5.5	0.5	0.0	-1.6	0.7	2.5
	증권	72		1.1	14.3	6.5	0.5	1.2	-2.8	-3.9	-9.8	-9.3
	UBS	16	60.1	1.1	11.1	9.1	1.0	0.8	-3.0	-1.8	-16.7	-11.8
	Credit Suisse	15	38.4	0.9	12.6	6.7	0.4	0.4	-4.9	-8.6	-14.5	-13.8
	Deutsche Bank	10	23.6	0.3	22.3	0.9	0.1	0.6	-6.7	-5.5	-26.3	-38.2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747	1,783	1,809	1,849	1,838	1,853	-3.6	-6.2	-10.2	-9.1	-10.6
	3 Year	1,957	1,990	2,085	2,190	2,280	2,134	-3.3	-12.8	-23.3	-32.3	-17.7
	5 Year	2,172	2,200	2,340	2,480	2,535	2,347	-2.8	-16.8	-30.8	-36.3	-17.5
	10 Year	2,377	2,427	2,570	2,720	2,797	2,467	-5.0	-19.3	-34.3	-42.0	-9.0
일본	국고채											
	1 Year	-0.117	-0.113	-0.119	-0.140	-0.157	-0.145	-0.4	0.2	2.3	4.0	2.8
중국	국고채											
	1 Year	2,847	2,887	3,072	3,132	3,364	3,834	-4.0	-22.5	-28.5	-51.7	-98.7
미국	국고채											
	1 Year	2,425	2,428	2,394	2,261	1,997	1,732	-0.4	3.1	16.4	42.8	69.3
유럽	국고채											
	1 Year	-0.524	-0.544	-0.522	-0.570	-0.557	-0.611	2.0	-0.2	4.6	3.3	8.7
	10 Year	0.345	0.305	0.397	0.472	0.653	0.427	4.0	-5.2	-12.7	-30.8	-8.2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